

[상표출원번호 : 40-2002-0058087호]

청광달마도 자기 수맥차단

"TV SBS 토요미스테리 방영"

청광달마도자기



청광달마접시



수맥과 청광달마도...

평생의 지하수가 흘러나 암석속에서
중을 이루며 움직이는 것을 수맥 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구 고유진동의 주파수와는 달리 인체나 전자기기의 전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를 수맥파라 합니다. 이러한 수맥은 아무리 초고층아파트라 하더라도 인체의 뇌파와 전자기 체계를 교란시켜 신경, 면역호르몬 기능의 저하 또는 생체리듬의 부조화를 일으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아래로 수맥이 흐른다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맥위에서 생활하면 피로감이 심하고 명쾌하며 정신집중이 잘 안된다고 한다. 또 숙면을 할수도 없으며 꿈도 자주 온다. 병원을 갈 때도 별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머리가 무겁고 짜증이 심해진다. 수맥위에서는 나무가 시들거나 비틀어지고 이유없이 잎이 떨어진다. 부실공사가 아닌것으로 관망된 건물외벽이 균열이 가는 것도 수맥의 영향 때문이다.

수맥이 흐르는 곳 위에 있는 묘는 잔디가 말라 죽으며 봉분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경우 시신을 이장하다 보면 시신이 새까맣게 변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맥이 지나가면 그곳으로 물이 빠지면서 흙이 생겨 수맥위의 물을 빨아들여 습기가 없어지게 되므로 잔디가 마르며 봉분이 함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 아무리 명당이라도 그 아래 수맥이 흐른다면 명당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수맥에 관련한 협회나 연구단체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40년전부터 선진국에서도 결성되었다고 하고 활발한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수맥은 피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겠지만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복잡하고 밀집형태의 생활환경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수맥과를 차단하고 수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TV SBS 토요 미스테리에서 청광선생의 달마도가 방영된적이 있다.

청광달마도 이야기...

인도 출신의 승려로, 중국 선종(禪宗)의 시조(始祖)인 달마(5세기말~6세기초). 그는 9년 동안의 면벽(面壁) 정선과 중국 소림사의 권법(拳法)을 창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중국 남북조시대 때 중국으로 건너가 양(梁) 무제(武帝)의 부덕과 오만함을 질타했다가 그의 분노를 사 목숨을 당했지만 관 속에서 다시 살아나 짚신 한 짚만 남기고 서쪽으로 갔다고 한다. 달마대사의 서천행(西天行)은 속세를 초월한 선(禪)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달마도엔 선의 세계, 즉 깨달음이 담겨야 한다. 진리는 끝이나 끝을 뛰어넘는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 달마도는 곧 절대 자유, 절대 무심(無心)의 경지이자 절대 공경의 진리여야 하는 것이다. 원래 민화를 그려왔던 청광 화백이 달마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75년 전남 해남 대둔산에 있는 대흥사 산내 말지인 복암에서 머물던 어느날부터이다. 민화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던 어느날 그는 복암에 머물게 되었고 그 날도 그림을 그리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재가 한창 어울려 놀다가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미끄러지다가 알뜰결에 두 팔로 무엇인가를 부여잡고 보니 어떤 할아버지의 다리였어요. 그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재 끝에 자주 나타나 하늘의 소리를 전해주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지요. 그 할아버지는 '내가 바로 달마다. 앞으로 너의 행상을 그려 만민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려줬다고 대답을 하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신기한 꿈이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일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잘 아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난데 없이 한 노인이 나타나서 돈을 얹어 달마를 그려 달라라는 것이었다. "저는 민화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달마 라니요.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짜고짜 냐다 소리를 치며 또 "달마를 그려달라"는 것이었다. '달마? 달마... 그래, 어젯밤 꿈 속의 그 노인이 달마라고 했지? 돈도 꿈 속 노인의 모습과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꿈 속에서 본 대로 달마를 그렸다. 그런데 그림을 다

그리고 보니 달마를 그려달라던 그 노인은 온 데 간 데가 없었다. 그때 이후로 청광 화백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달마를 그려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주기 시작한 달마가 만 장을 넘었을 때부터 불가사의 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 일어나 졸음을 하고 있다보면 그날 달마를 그려 달라고 할 사람의 숫자가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달마를 받아간 사람들 사이에 달마영험담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달마를 열고 보니 사업이 끝판도 잘 되더라. 차사고가 나는데 자신만 말짱하더라. 수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임신이 되더라. 병원에서 도 못 고 친다면 불치병이 나왔더라. 청광 화백은 달마도를 갖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자만 보어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고향이 무엇이고 소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더라... 어느덧 청광 화백이 그린 달마는 '행운의달마도' 가 되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문 이스탄은 드디어 지난해 2월 SBS 토요미스테리라는 프로그램에 재보되었고, 그 내용이 방영 되었다. 그 후 두 달 후인 4월에는 청광 화백이 그린 달마를 걸린 수맥이 차단된다는 방송이 역시 같은 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그가 그린 달마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다. 하루에도 수천 장씩 배달되어 10만 명이 넘는 신청자의 명단을 정리하는 데에만 꼬박 4개월이 걸렸다. "수맥이 차단된다는 것은 저도 모르던 사실이었습니다. TV프로그램을 보고 처음 알았지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좋은 그림을 만 번 정도 그리다 보면 통찰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지요. 만 번 정도 되면 그 안에 혼과 정성이 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야 정성에 지은 빛을 갖는 것 같이 기분이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이들을 굳이 내치지 못해 전국 각지, 혹은 해외에서 온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자연 밀리기도 하지만 그 런지 하나하나를 소중히 모으고 사연의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해서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등을 찾아야 할 채우처럼 차곡차곡 적어 두었다. "그림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병들고 딱한 사람에게 양보하며 덕을 베푸는 것은

비로 달마 대사가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경남 고성에 대대손은 거문있는 집인의 중순으로 태어난 청광 김용대 화백은 선천적인 안경이로 세상에 태어났다. 집안이 말라 뒤집어진 것은 물론이려니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로부터 심한 따돌림 속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림은 유일한 그의 위안이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린다고 아버지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받은 것도 꽤 많았다. 진주 남종과 진주노고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러 했으나 시험에 떨어진 성격으로 합격을 하고도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다. 신체장애가 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심한 좌절과 패배감으로 자살기도를 한 것도 몇 차례 인지 모른다. 그런데 진주 남종에 몸을 던져 이성을 마감하려던 어느날 그는 무연히 강변 언저리에서 음이조각에 쓰여진 글귀를 보는 순간 다시 태어났다. 세안부부(世安無福)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을 가진 자는 없다는 문구를 보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을 가진 자는 없는 거야.' 이로 인해 신체적인 병과 마음 속의 병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었던 그는 그 때부터 자신이 정말 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청광달마도를 보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도자기 제품으로 출시하게 되었으며 도자기에 새겨져있는 달마도 또한 청광선생의 마음이 한결 한결 정부 옮겨져 있으므로 스즈하시어 늘 달마의 좋은 기(氣)가 충만하기를 빌며 업장소멸,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품 한점의 보시는는 290,000이며 청광달마 도자기 첫 출시 기념으로 마련한 반상기(2인용)세트와 청광 선생이 일본 대덕 고승들로부터 달마도를 무상 보시하고 받은 인공대관서를 같이 무상 보시 해 드리겠습니다. <청광달마미합점>

일본 대덕 고승 낙관서



무상 반상기 2인 set
일본대덕고승낙관서
수맥탐사봉 1set

사찰 단체주문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불사 기금마련을 위한 주문품은 별도 상담에 드립니다)

문의 [031]793-8529,30,31 [주]
직통 [02] 776-7358 [주야]